

현대 테니스 웨어에 나타난 패션성에 관한 연구⁺

김혜정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ashion Style in Contemporary Tennis Clothing

Kim Hyejeong

Prof.,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roughout history, tennis-wear designers have attempted reforms to the designs, which were swayed a lot by game rules, and more efforts than ever are put forth recently. The efforts to introduce fashion designers into tennis brands and to break down the barriers between sports brands and common fashions have contributed to the advancement of tennis-wear. However, designers are not the only contributors to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tennis-wear.

Tennis players who are well aware of the design make-up may affect some aspects of tennis-wear. Even some tennis players launched certain tennis-wear brands. They are not just players in games, but also innovators of this certain type of clothing. In this sense, they design, select, and put on tennis-wear as designers and players, which has contributed a lot to variation and advancement of tennis-wear.

Such diversified of attempts in terms of design have led to the variety of tennis-wear, and adopting certain features of other sportswear has enhanced the functionality as well. As for materials, functional materials as well as lingerie look and laceworks as in dance looks were used, and even nude-color short pants were introduced to represent such images of fantasy and illusion. As for color as well, a revolution of color, which has been a taboo, was led. The popularity of tennis-wear fashions even leads to combination with features of other areas, which has been more diversified by the collaboration with designs inspired by toga of Greece and various other areas such as films and arts.

Key Words : sports(스포츠), sports brand(스포츠 브랜드), tennis wear(테니스 웨어), collaboration(콜레보레이션), tennis player(테니스 선수)

⁺ 본 연구는 2011년도 한경대학교 교내파견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1. 서론

튜더(Tudor, 1974)는 스타와 팬과의 관계를 친밀도와 몰입의 정도에 따라 각각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친밀도에 따라 '자기 동일시'와 '감정적 친화'로 구분하고, 몰입의 정도에 따라 '투사'와 '모방'이란 범주로 구분하였다. '자기 동일시'는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사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스타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를 말한다. 모방은 이보다는 약하나 스타의 행위나 의상, 장신구, 머리모양 등을 선호하고 따르려는 정도를 의미한다¹⁾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동일시와 감정적 친화로서의 투사와 모방은 스포츠 마켓에 적절히 적용되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들은 스포츠 선수들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그들에게 스포츠 용품을 착용시킴으로써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며, 제품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인해 스타를 닮기를 위한 대리만족의 시도들로 대중들은 스포츠 웨어와 스포츠 액세서리의 구입 및 착용을 통해 시각적 욕구를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에 스포츠 브랜드에 더욱 집중화되었는데 특히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 웨어보다는 일상복과 혼재하여 입을 수 있는 스포츠나, 경기 중 선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경기용 스포츠 웨어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 웨어의 요소들이 캐주얼 의류에 접목된 캐포츠(caports)라는 의류영역의 세분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경기 중 매너를 중시 여겨 역사적으로 귀족스포츠로 손꼽힌 테니스는 경기 매너 중 테니스 웨어의 착용 또한 중히 여겼다. 그러나 스포츠웨어가 점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되면서 패션계와 스포츠웨어 업계의 경계허물기와 영역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경기용 테니스 웨어에도 패션화 바람이 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관람자에게 볼거리를 선사해야 하는 선수들은 파격적 테니스 웨어를 즐겨 착용하게 되었다.

테니스 웨어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기용 스포츠웨어가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

에 테니스 웨어의 구성 요소들이 경기복이 아닌 일상복의 패션트렌드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으며 반대로 선수를 위한 테니스 웨어에도 패션성이 자유롭게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발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현대 스포츠 현상의 발생배경과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스포츠 브랜드와 패션디자이너들의 콜라보레이션 현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테니스 웨어에서 보여지고 있는 기존의 패션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 현상 뿐 아니라 테니스 선수들의 테니스 웨어 런칭 시도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의 목적은 테니스 웨어가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되어 스포츠와 레포츠키의 착용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복의 아이템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부각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테니스 웨어 브랜드들의 경계허물기의 노력으로 기존 패션디자이너들과 테니스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뿐만 아니라 테니스 선수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테니스 웨어에 파격을 시도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스포츠 패러다임의 시대에 스포츠 의류가 사회적 화두로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의 표현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도구임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제한점은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일부 남성 테니스 웨어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본 연구가 여성 테니스 웨어의 패션화 현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남성 테니스 웨어에 대한 다양한 경계허물기의 시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테니스 웨어의 패션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II. 현대 스포츠브랜드와 패션디자이너들의 콜라보레이션

1. 현대 스포츠 현상의 발생배경 및 양상

20세기의 사회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더 나은 삶의 가치 추구를 위한 건강증진과 유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사회의

다원화와 여성의 여권신장, 주 5일제 확산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는 레저와 스포츠의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고급 스포츠의 평준화와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에 대한 관심의 확대로 스포츠 웨어, 스포츠 기구(gear) 등의 개발과 확산으로 이어졌다.²⁾ 또한 스포츠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스포츠를 하는 선수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스포츠 스타를 양산해냈으며 그들을 셀러브리티(celebrity)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화산업이기도 하다. 최근 연구에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현재 미국에서 11번째로 거대한 산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컴퓨터 하드웨어, 법률서비스보다 큰 규모이며 영화, TV, 교육서비스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증가하는 여가, 소득의 증대, 대중매체의 발달로 스포츠 비즈니스는 명백히 상승하는 경제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는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들의 지위상승으로도 알 수 있다.³⁾

스포츠 스타를 양성해내고 명성있는 스포츠 선수의 영입 등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을 결정하는 스포츠 팀의 가치는 스포츠 팀이 가지는 전체 가치 중에서 시장이나 리그가 아닌 팀 이름 자체에서 파생되는 가치 부분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또한 스포츠 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광고 출현 등 각종 제조사들의 모델활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로 인해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한 광고가 붓물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 따라 스포츠 스타의 일거수 일투가 대중의 시선을 받고 있다.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광고로 인해 대중들에게 강하고 건강한 몸매에 대한 동기부여로 그와 비슷해지기 위한 일반인들의 노력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는 관중과 팬들은 그들이 경기 중이나 사적으로 행하거나 착용하는 모든 것에 모방심리를 느끼며 그들과 닮아가려 노력한다. 이러한 현상은 신드롬을 일으켜 스타일 따라잡기 등의 행동양식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스포츠 스타의 광고효과는 연예인을 모델로 했을 때보다 스포츠스타의 전문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보이며 매력적으로 보이는 스포츠스타에 대해서

는 패션성과 자신의 외모를 꾸미거나 스타일 등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광고효과를 높였다. 스포츠 스타들이 선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음료수, 자동차와 같은 비스포츠 상품부터 운동용품이나 스포츠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최근 패션 스포츠 브랜드들이 경기에 참여한 스포츠 스타들의 광고모델 기용뿐 아니라 그들에게 스포츠 웨어나 스포츠 액세서리의 착용하게 함으로써 ppl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스타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스타선수들을 기용함으로써 그들이 착용한 의류 브랜드의 노출을 교묘히 이용하는 엠부시 마케팅⁴⁾ 기법 등이 주요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운동경기 중에만 착용하는 기능성 위주의 스포츠웨어 보다는 일상복과 혼재하여 입을 수 있는 스포츠 의류나 테니스와 같은 경기규칙상 착용한 의상이 경기 중 선수의 개성이나 패션성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된 경기용 의류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2. 현대 스포츠브랜드와 패션디자이너들의 콜라보레이션

1990년대 이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스포츠 웨어가 스포츠 경기에 착용하는 의상의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하는 일상복의 요건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인해 스포츠 웨어의 구성 요소들이 패션트렌드에도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의 확산은 스포츠 웨어의 요소들이 캐주얼 의류에 접목된 캐포츠(caports)라는 의류영역의 세분화를 가져왔다. 캐포츠는 캐주얼 의류에 기능성과 활동성을 가미한 의류로서 일상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고, 일상에서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실용적 가치추구에 대한 관심은 근무복과 레저 웨어 또는 스포츠 웨어의 구별을 모호하게 함으로서 경제적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의해 더욱더 스

스포츠 웨어의 영향력은 가속화 되고 있다.⁵⁾

스포티즘은 최근에 떠오르는 용어로 스포츠 스타일을 패션에 접목한 것을 말하며 이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용도의 스포츠 웨어와는 차별화 된다. 이지 웨어와 캐주얼과 같은 트렌드에 힘입은 스포티즘에 대한 정의의 확장은 스포츠 경기복에서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받은 상태를 포함하여 기능적 스포츠 웨어의 요소들 형태, 디테일, 트리밍, 컬러 등이 트렌드와 접목되어 부분적으로 사용된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부터 푸마에서 스포츠 패션 컬렉션을 디자인한 후세인 살라얀은 '운동을 하다가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도 예쁜 옷'이라고 소개하고 "스포티즘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스타일"이라며⁶⁾ 패션과 기능적인 면들의 조합을 통해 도시적인 삶 속의 스타일리시함을 추구하였다.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한 미국 선수단(Team USA)의 세레모니 의상을 디자인하고 스티라 매카트니가 아디다스와 2012 런던 올림픽에서 영국 국가대표 팀의 의상을 모두 지휘하는 등 스포츠웨어가 점점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진화되면서 패션계와 스포츠웨어 업계의 콜레보레이션을 종종 볼 수 있다.⁷⁾

이러한 현상들은 패션디자이너들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 속에서 더욱 추진력있게 진행되고 있다. 조르조 아르마니(Giorgio Armani S.p.A)와 스포츠 브랜드인 리복의 피트니스와, 트레이닝 룩과 패션의 만남을 시도한 아디다스는 일본 출신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와 손을 잡고 별도 브랜드인 'Y-3'를 론칭하였다.

맥퀸과 푸마는 2006년 애스래틱 슈즈를 시작으로 스포츠 의류, 잡화, 액세서리까지 확장하였으며 맥퀸의 사망으로 푸마는 흑인 아티스트 케힌데 와일리를 새로 영입하여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포츠 패션의 영역을 확장하여 스포츠 브랜드의 패션화를 지향하고 있다.⁸⁾ 이는 기능 위주의 스포츠 의류를 하나의 패션으로 인식하고 스포츠와 레포츠시의 착용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복의 아이템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이 부각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성의 패션디자이너들이 스포츠를 컨셉으로 하는 도시인들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한다. 알렉산더 왕의 짐 시크 룩, 구찌나 프로엔자술러 등의 미래지향적인 스포티 룩, 에르메스의 장 폴 고티에와 발렌시아가의 런웨이를 비롯, 구찌의 프리다 지아니니 등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컬렉션에 스포츠웨어의 요소들을 접목한 일상적 스포츠 룩을 선보이고 있다.

III. 테니스 경기와 그랜드 슬램

1. 테니스의 유래 및 규칙

테니스는 코트 중앙에 네트를 치고 양쪽에서 라켓으로 공을 노바운드 또는 원바운드로 일정한 구획 안에 서로 쳐서 넘겨 규정에 따른 득점의 다과로 승부를 겨루는 구기경기이다. 코트의 크기나 모양도 물론 달랐고, 공도 머리카락을 통글게 감아 그 위에 모피를 씌웠다고 하며, 공을 만드는 방법이 차차 진보함에 따라 경기방법도 변천해 왔다.⁹⁾

테니스는 13세기경에 프랑스의 왕후귀족들이 다과회나 연회 등의 행사로서 거행하고 있던 실내 유희가 그 기원이 되었다. 한때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기 때문에 루이 10세가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대중화되었다.¹⁰⁾

고대 테니스 역사인 1292년의 기록에 의하면 파리에서는 13개의 볼 제조 회사가 있었고 당시 프랑스 국왕 필립 4세, 루이 14세, 조지 2세 등이 테니스에 열중했다. 테니스가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것은 1396년이며, 차츰 영국 상류사회에서도 즐기게 되었다.¹¹⁾

테니스는 프랑스어로 '손바닥'이란 뜻의 '뽀므'라 불리웠으며 말 그대로 이 경기는 손바닥으로 볼을 치면서 하는 경기였다. 1583년 이탈리아에서 라켓을 고안하였으며 16세기에 Paume(palm)에서 쥘드폼(jeu de paume)이라 하여 "Game of Palm"이란 의미의 경기로 발전하여 손대신 라켓을 사용하였다. 1873년에 월터 윙필드(Walter Wingfield) 경은 그리스식 공놀이이라는 스파이리스틱(Sphairistik)이라 불리는 게임을 발명하여 영국웨일즈에 처음 소개하였

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부유한 영국민에 의해 정원의 잔디 위에 모래시계 모양의 코트를 그려서 게임을 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현대 테니스로 변화된 첫 시발점이었다. 게임은 프랑스 단어 'hold this'라는 'tenir' 또는 'to hold'라는 'tendere' 또는 'to take'라는 'tenez'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 '테니스(tennis)'로 알려지게 된 것으로 유추된다.¹²⁾

1877년에 영국 워플로드(Worple Road)에서 남성들만을 위한 첫 웬블던테니스 챔피언십이 열렸으며 1884년에 가서야 첫 여성경기 웬블던 테니스 챔피언십이 열린 후 남자 복식경기가 처음 소개되었다. 1881년 미국 국립잔디테니스협회(The United States National Lawn Tennis Association (USNLTA))가 처음 건립되고 첫 챔피언십이 열렸다. 1887년에 처음 여성부경기가 개최되었다. 1905년에는 첫 호주오픈이 열렸으며 1912년에 국제 잔디 테니스 협회(The International Lawn Tennis Federation (ILTF))가 4개 메이저 테니스 챔피언십(Wimbledon, U.S., Australasian, and French)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¹³⁾

1950년에 프로투어 (Pro Tour)가 잭 크레이머에 의해 시작되었고 아마추어 테니스선수들과 퍼블릭 테니스 선수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953년에 머린 컨넬리(Maureen Connelly)에 의해 그랜드 슬램 4개의 챔피언십을 완성한 첫 여성이 탄생된¹⁴⁾ 이래로 지금의 테니스대회에 이르게 된다.

테니스는 백색 스포츠라는 말이 있는데 인종적인 편견과 테니스 웨어의 컬러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전자의 의미는 오랫동안 테니스가 백색인종을 위한 귀족 스포츠로 여겨져 왔던 것을 뜻하나 1957~1958년에 미국의 흑인 여자선수인 아렛사 김슨이 전미 웬블던에서 우승하면서 백인 제일주의가 무너지게 되었다.¹⁵⁾

1968년 아서 애쉬가 전미 싱글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유색인종의 테니스계 진출이 활발해졌으며 인종적인 의미의 백색 스포츠의 이미지가 완전히 없어졌다. 후자의 의미는 테니스 웨어가 모자에서 유니폼, 신발, 양말까지 모두 백색으로 제작되어지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온 것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

으나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웨어에도 디자인이 중시됨에 따라 현대에 와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¹⁶⁾

2. 테니스경기와 그랜드 슬램

테니스는 23.77m (78 ft) 길이에, 단식은 8.23 m (27 ft) 폭이다. 복식코트의 폭은 10.97 m (36 ft)의 직사각형의 코트 위에서 하는 경기로 코트의 라인은 바닥표면 색상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한 가지 색상으로 그려서 사용한다.¹⁷⁾

경기의 종류는 1:1의 단식, 2:2의 복식, 남자와 여자가 한 팀이 되어 경기하는 혼합 복식이 있고, 경기 방식은 개인전 및 단체전이 있으며 정식 경기시 남자는 5세트, 여자는 3세트로 이루어져있다.

타구의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4가지 방법은 포핸드(fore hand)와 백 핸드 (back hand)스트로크, 서브 그리고 발리이다. 스피드샷, 드롭샷, 로브 그리고 스매싱은 상기 4가지 기본 스트로크의 변형 등이 있다.¹⁸⁾

테니스에서 메이저(major)라 불리는 그랜드슬램은 월드순위, 전통, 상금과 국민의 관심 등으로 인해 그 해의 가장 중요한 테니스 이벤트로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웬블던과 US 오픈 등이 있다. 단식이나 복식 팀이 한해에 4개의 그랜드 슬램 경기를 모두 우승했을 때 '그랜드 슬램'이라 한다.¹⁹⁾

그랜드 슬램은 국제테니스연맹(ITF: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이 관장하는 그랜드슬램대회, 즉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웬블던, US 오픈의 4개 대회에서 모두 한 번 이상씩 우승하는 것을 말한다. 혹은 이들 대회를 '그랜드 슬램 대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호주오픈은 4개의 그랜드 슬램에서 제일 처음 열리고 하드코트에서 경기를 치루며 메인 코트인 로드 레이버 아레나(Rod Laver Arena)와 하이센스 아레나(Hisense Arena)에서 경기를 치른다. 경기복의 경우 색의 제한이나 복장의 제한은 없다.

그랜드 슬램 중 유일하게 잔디 코트에서 개최되는 웬블던 챔피언십은 1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녀, 그랜드 슬램 4개 대회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전통을 중시하는 대회의 정신에 따라 참가 선수들은 의무적으로 흰색 유니폼과 테니스화를 착용해야만

하며 베스트드레서상에 해당하는 베스트인 쇼 상이 있다.

프랑스 오픈 챔피언십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클레이 코트 대회이기도 하다. US오픈은 1881년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이다. 아크릴 소재의 하드 코트 경기장에서 열리며 프랑스 오픈이나 US 오픈 모두 경기복의 규제는 없다.

IV. 현대 테니스 웨어에 나타난 패션성

1. 테니스 웨어의 구성 및 규정

테니스는 예절을 중시여기는 스포츠로 경기 중의 매너 뿐 아니라 경기복장 또한 흰색의 셔츠와 함께 남성은 팬츠, 여성은 큐트를 착용하고 흰색의 양말과 테니스화 등을 기본으로 한다.

테니스 기구인 라켓은 표준 규격과 재질에 제한이 없어 크기와 재질이 다양하다. 테니스 라켓의 경우 다양한 재질로의 변천을 보였는데 1930년에 한 조각의 우드라켓에서 라미네이트 우드로 대체되었다. 1967년에 첫 윌슨(Wilson) 덕분에 메탈로 된 테니스 라켓이 소개되었다. 1976년에 첫 그라파이트(graphite)와 파이버글라스(fiberglass) 라켓이 허워드 헤드(Howard Head) 왕자 덕분에 선보였으며²⁰⁾ 둥근형태의 프레임에서 변형된 둥근 프레임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테니스는 클레이 코트와 하드코트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만큼 테니스화의 선택 또한 중요하다. 테니스화는 가죽과, 헝겊, 인조피혁 또는 세 가지가 디자인에 따라 적절히 적용된 스타일 등 다양하다. 테니스화는 디자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부분인데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슬라이딩과 미끄럽지 않은 평평한 밑창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적당한 쿠션감이 있으며 발목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목을 감싸지 않은 스타일의 테니스화를 착용한다. 클레이 코트는 흙으로 되어있으므로 코트가 파이지 않고 편편해야하며 하드코트용은 바닥의 충격을 흡수하고 발목을 고정시킬 수 있는 쿠션감이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테니스 웨어의 경우 흰색을 착용하던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다양한 컬러의 테니스 웨어가 착용되

고 있으며 아이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템이 접목되어 나타나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디테일이나 트리밍에 있어서도 생략되거나 디자인을 강조하는 디테일과 트리밍이 가미된 각종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도 신소재의 개발에 힘입어 기존에는 면섬유로 테니스 웨어가 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흡한 습건(吸汗速乾)으로 쾌적 착용감을 위해 땀을 배출하는 섬유로 대체되고 있다. 땀 뿐 아니라 수분을 빨리 흡수, 이동시켜 피부에 끈적끈적한 밀착감을 줄이고 땀이나 수분을 직물 외부로 증발을 촉진시키는 발산기능과²¹⁾ 쾌적감과 통풍이 잘되는 스포츠 소재를 활용한 아이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기능적인 부분과 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상의 안에 브라가 장착되어 있는 빌트인 브라(built-in bra)를 고안해 땀으로서 활동성을 높이고 가슴을 지지해주는 스타일이 애용되고 있다.

테니스 웨어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은 것은 테니스 경기시의 상대방의 인격을 중시 여기고 테니스 웨어의 착용을 비롯한 경기에서의 예의는 세월이 흐름에도 변함이 없다.

2. 현대 테니스 웨어의 다양한 디자인적 콜레보레이션

1914년에 수잔 랭글런(Suzanne Lenglen)이 프랑스 챔피언십에서 짧은 스커트와 선수의 맨살의 팔이 드러나는 것을 처음 시도한²²⁾ 이래로 새로운 스타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수잔 랭글런에 시도된 스타일의 변화는 몸의 움직임을 쉽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활동성을 위한 인체의 해방은 후대에 기능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테니스 웨어의 디자인적 측면에서도 기념비적인 이슈가 되었다.

1920년대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전설적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Rene Lacoste)가 1933년 앙드레 길레(André Gillier)와 함께 설립한 La Société Chemise Lacoste는 테니스 웨어를 비롯 테니스 용품의 개발과 새로운 스타일의 시도를 하였다. 라코스테는 수가 높아진 테니스 셔츠를 제작하여 직접 경기에 착용하고 출전하기도 하였다.

1927년에 프랑스 데이비스컵에서 우승하면 얻을 수

있었던 악어가방을 경기 중 갖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슴에 악어그림을 수놓은 블레이저를 입고 출전하였으며 루즈한 니트와 면 셔츠로 만든 그만의 옷을 제작하였다. 이 가슴에 악어그림을 수놓은 셔츠는 빠르게 전파되었다. 첫 라코스테 셔츠는 당시에는 테니스 코트가 컬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구별을 쉽게 하기 위해 흰 셔츠에 짧은 소매와 리브(rib)조직의 칼라와 커프스를 사용했고 이러한 특징은 “petit piqué” 저지 니트(jersey knit)라 하여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다<Figure 1(left)>.²³⁾

폴로나 테니스 경기를 위한 운동복에 불과했던 피케 셔츠는 1972년 미국 디자이너 랄프 로렌이 폴로 니트 셔츠를 선보이면서 클래식 패션 아이콘으로 부상하였다. 랄프 로렌의 클래식 피케 셔츠는 시간을 초월한 오리지널리티를 간직하면서 다양한 컬러와 패턴, 피트를 선보이며 변신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²⁴⁾ 랄프로렌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웬블던 대회의 공식 의상을 지원하며 스포츠웨어 부문에 디자이너 파워를 확대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으며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을 입증 받았다.²⁵⁾

그 외에도 당시 테니스 경기의 룰에 지배받던 테니스 웨어의 디자인에 있어서도 테니스 웨어 디자이너들의 끊임없는 변혁으로 테니스 웨어가 진화 발전되는데 일조하였다.

웬블던 론 테니스 박물관(lawn tennis museum)에서는 테드 킬링(Ted Tinling)²⁶⁾에 대한 전시를 2010년 6월에 가졌다. 테드 킬링은 mediocre-at-best 테니스 선수였으며 여성 테니스 웨어 디자이너로 유명했다. 그는 공개된 게이였으며 마리아부예노(Maria Bueno)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를 위해 많은 디자인을 하였다.²⁷⁾

킬링은 실용적인 테니스 웨어에 패션성을 가미한 인물이다. 그는 1974년에 조이 가논(Joy Gannon)과 베티 힐튼(Betty Hilton)을 위해 밝은 컬러의 핑 라인과 스티치를 넣어 디자인 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 테니스 단체에서 제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런 일이 있은 후 더욱 흰색복장 착용이 강요되었다.

그는 1949년 구씨 모렌(Gussie Moran)을 위해 속에 착용한 블루머 형태의 니커(knicker)에 레이스로

끝단을 처리함에 따라 사임의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Figure 1(right)>.²⁸⁾



<Figure1> (left) René Lacoste

- <http://fondationrenelacoste.org>

(right) Knickers of Ted Tinling,1949

- <http://www.britishtennis.com>

테니스 웨어의 발전과 진화는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테니스 웨어의 디자인적 구성을 잘 알고 있었던 테니스 선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테니스 웨어의 혁신자로 존재하였다.

그들은 라코스테와 같이 직접 테니스 웨어 디자이너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직접 테니스 웨어를 선택, 착용함으로써 테니스 웨어가 다양화되고 진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으뜸가는 스포츠 패셔니스타 중의 하나인 메리 피어스(Mary Pierce)는 1970년대 후반 테니스 웨어를 부활하게 한 어머니이다. 그녀는 선수생활동안 로드 레이버 아레나 (Rod Laver Arena)²⁹⁾에 플라운스가 달린 원피스를 연속해서 입었다. 1995년에는 순백색을, 1998년에는 LBD (Little Black Dress)를 입었고 1999년에는 강굴색의 스포츠 드레스를 입었다. 여자 단식 챔피언십을 거머쥐었을 때는 현대 여성테니스 패션에 필수적인 니커(knicker)를 입었다.

2010년에는 웬블던 테니스 경기에 참여한 네덜란드 선수 캐롤린 워조니아키가 ‘아디다스 바이 스텔라 매카트니’ 제품을 착용하여 결국 스포츠의 기능성과 패션의 창의성을 절묘히 조화, 패셔너블한 스포츠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³⁰⁾

테니스 선수들은 경기 외에 외모나 화려한 옷,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외관 등으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고의적으로 노출이 많거나 관중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하는 테니스 웨어를 착용하여 테니스 선수 활동 이외에 모델을 비롯한 방송활동에 집중하기도 하며 이러한 스포츠 스타들의 패션브랜드 런칭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³¹⁾

테니스 선수이자 테니스 웨어 디자이너인 비너스 윌리엄스(Venus Williams)는 스티브 앤 배리(Steve & Barry)와 함께 클로딩 라인(clothing line)을 런칭하였다.³²⁾ 테니스 웨어 디자인을 포함하여 선수로서의 활동이 활발한 사라포바는 테니스 패션을 조언하는 노련한 동료가 많이 있다고 하였다. “나는 테니스 코트에서 입을 테니스 웨어에 대한 평가를 위원들로부터 받는다.”³³⁾라 하였고 사라포바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패션스쿨을 생각할 정도로 패션디자이너의 열망을 갖고 있었으며 코트장에서 남들보다 앞서는 패션에 많은 관심과 선수개인의 개성을 나타내는 테니스 웨어의 착용에 관심을 보였다.³⁴⁾

최근에는 남성 테니스 웨어 측면에서 보면 팔에 패션 액세서리를 한 타미하스(Tommy Haas)의 소매 없는 셔츠와 라파엘 나달(Rafael Nadal)의 긴 바지와 소매 없는 셔츠, 앙드레 아가시(Andre Agassi)의 데님 바지, 데님 셔츠와 멀티컬러의 셔츠를 착용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2002년 U.S. Open에 참가한 세레나 윌리엄스는 점프 수트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세레나 윌리엄스는 2010년 프랑스 오픈 인터뷰에서 한 경기당 단식경기에는 7벌과 복식에는 6벌의 테니스 웨어를 준비하여 한 번 이상 입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아나 이바노빅(Ana Ivanovic) 또한 5-6벌의 다르지만 같은 종류의 드레스를 준비하고 언더팬츠와 드레스가 하나로 된 세트를 입으며 모든 경기마다 다른 테니스 웨어를 착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세레나 윌리엄스나 아나 이바노빅의 인터뷰는 테니스 웨어의 패션성이 이슈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랄 할 것이다.

3. 현대 테니스 웨어에 반영된 패션성

1) 아이템의 다양화

(1) 타 경기복의 도입

테니스 웨어는 1960-70년대를 거쳐 흰색의 짧은 큐롯과 칼라가 있는 셔츠와 흰 양말의 착용이 정형화된 테니스 웨어였다. 그러나 테니스 웨어는 선수 개인의 취향 및 기능성의 강화로 아이템 및 스타일이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현상으로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역의 파괴현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Figure 2> (left) Ashley Harkleroad's Gear, 2008

- <http://www.allposters.com>

(right) Adidas by Stella McCartney's Tennis Bra Includes Built-In Heart Sensor, - <http://www.ecouterre.com>

애슈리 하크러로드(Ashley Harkleroad)³⁵⁾가 착용한 테니스 웨어는 육상 경기복의 형태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기도 하지만 테니스 선수에게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활동성과 착용성 등의 기능적인 것에 더욱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이템이다<Figure 2(left)>. 이러한 현상은 여성 테니스 웨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남성 테니스 웨어에도 해당된다. 남자선수 앤디 머레이(Andrew Murray)³⁶⁾는 경기에 타이트한 사이클링 바지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테니스 웨어의 기술적 향상은 테니스 웨어의 빌트인 브라에도 나타난다. 심장박동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소재에 있어서도 땀을 재빨리 방출할 수 있는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경기복의 패션성 뿐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능적 요소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Figure 2(right)>.³⁷⁾

(2) 원피스와 숏팬츠 스타일의 도입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스포츠 브랜드들의 패션디자이너들과의 콜레보레이션은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왔다. 2000년 초반의 기능적 형태의 저지(Jersey) 셔츠와 팬츠 등 육상 경기복에 영향을 받은 테니스 웨어의 형태보다는 클래식한 테니스 웨어의 요소들을 살린 디자인이 많아졌다.

특히 투피스 형태인 셔츠와 큐롯 스커트의 조합 대신 원피스 스타일을 적용하여 스윙 및 서비스를 할 때 셔츠가 올라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원피스의 등을 넓게 판 과감성으로 그 기능적 효과도 배가되었다. 이너에는 소매 부분이 생략된 레이서 백(racer back)의 탱크 탑을 착용하여 여성성을 부여하고 또한 소매를 탈락시켜 팔의 기능적 활동성을 부여하였다<Figure 3>.



<Figure 3> tennis wear of racer back style
- <http://whatsalltheracquet.com>

(3) 란제리 룩의 적용

경기복에 패션성을 가미한 테니스 웨어 디자인은 혁신적 기능소재의 개발과 함께 아이템 별 디자인간의 영역 파괴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Figure 4(left)>. 란제리 룩 스타일을 테니스 웨어에 접목시킨 비너스의 테니스 경기복은 찬반양론이 거셌다. 세계 테니스협회와 프랑스 테니스 협회에서는 테니스 웨어가 규칙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테니스 경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폴리시(Polish) 테니스 코치인 조아나 노악(Joanna Nowak)이 반대이유를 들었다

<Figure 4(right)>.

경기복 디자인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비너스는 플로리다에 있는 아트인스티튜에서 패션디자이너를 수강할 정도로 패션에 관심이 있으며 그녀 나름의 패션 철학을 갖고 있다. 비너스는 “남과 다른 독특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린다, 내 경기와 스타일, 태도, 개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다가가는 방식이 남과 다르고 독특하다. 그래서 내 패션스타일도 마찬가지이다.”³⁸⁾라고 하였듯 그녀만의 디자인에 대한 철학은 테니스 관객에게 재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테니스 웨어의 영역의 확장이라는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녀는 경기복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란제리 룩을 선보임으로써 테니스선수로서의 실력으로서만이 아니라 관객에게 볼거리를 선사하였다.



<Figure 4> (left)tennis wear of lingerie style
- <http://www.expert-tennis-tips.com>
(right) USA TENNIS, yunhap, 2010.04.04.
- <http://sports.media.daum.net>

2)소재의 다양화

스텔라 맥카트니가 아디다스와 콜레보레이션 한 2009년 테니스 라인은 맥카트니(Ms. McCartney)의 엠파이어 드레스로 루싱, 개더, 레이스를 아플리케로 장식한 화려한 에드워드안 란제리룩인 빈티지한 나이트 웨어 패션라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였다. 이 라인은 마리아 키리렌코만을 위한 테니스웨어였다<Figure 5(left)>.³⁹⁾

또한 비너스가 ‘소니 에릭슨 오픈’에 데뷔했을 때

입은 란제리 스타일의 테니스 웨어에 영감을 얻어 ‘강강’드레스를 디자인하였다. 검은 블랙 드레스에 레드 파이핑이 있는 얇은 레이스로 장식된 테니스 웨어를 ‘프랑스 오픈’에 디자인하여 착용하였다. 이것은 환각에 관한 것이었다. 레이스를 입고 그 밑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착각을 일으켜⁴⁰⁾ 댄스복과 일루전에 대한 영감을 표현하였다<Figure 5(right)>.



<Figure 5> (left) adidas by Stella McCartney
 - <http://www.tennisidentity.com>
 (right) Venus Williams tennis dress
 - <http://www.ifashion.co.za>

레이스가 달린 테니스 웨어와 스트레치가 강화된 숏 팬츠를 누드컬러로 착용하여 마치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스포츠 의류의 디자인의 요소에 기능성과 활동성을 넘어서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상과 착각이라는 요소를 테니스 웨어 디자인에 대입시켰다.

이 붉은 트리밍이 장식된 검은 레이스의 테니스 웨어는 좌초에 빠져있는 레이스 산업에 희망을 주었다. 프랑스에 기반을 둔 프랭크 소비에(Frank Sorbier)의 디렉터인 이사벨르 타르티어(Isabelle Tartier)는 “우수한 테니스 선수 비너스가 레이스를 입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그 스타일을 모방함으로써 프랑스제 레이스 산업이 되살아 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값싼 중국제 레이스 범람으로 인한 프랑스 레이스 산업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또한 ” 100퍼센트 코튼의 프랑스의 핸드메이드 레이스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으며 값싼 폴리아미드와 같은 케미컬 레이스로 대체되고 있다.

레이스가 테니스 웨어에 결코 쓰인 적이 없었지만 앞으로 레이스가 계속적으로 쓰여지길 원한다고“고도 하였다.⁴¹⁾

소재의 다양화는 스포츠라는 기능성과 연결되어 신체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틸라 맥카트니의 테니스 웨어는 테니스 경기복이 패션컬렉션과의 소통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비너스에 의해 디자인된 테니스 웨어는 테니스 경기복 디자인에 있어서 착용성이라는 규칙을 깨는 데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좌초에 빠진 프랑스 레이스산업에도 희망을 주었다.

3) 컬러의 다양화

테니스 웨어에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다. 화이트 컬러를 고수하던 전통을 깨고 다양한 컬러가 등장하였다. 2008년 호주 오픈에는 핑크, 화이트, 레드, 스카이 블루, 터쿼이즈 등 경기에 쓰여지지 않은 컬러가 입혀졌다. 아나 이바노비크는 2009년에 진한 자주색의 색드레스를 노골적으로 가슴부위를 쳐지게 하는 실수를 저질러⁴²⁾ 이목을 집중시켰다.



<Figure 6> (left) Caroline Wozniacki,
 - <http://www.tennisidentity.com>
 (right) Diversification of color
 - <http://cornedbeefhash.wordpress.com>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컬러의 사용은 나노기술을 활용한 텐셀(tencel)과 탁텔(tactel) 등의 신소재의 개발로 경량(輕量)의 좋은 촉감과 외양, 땀의 흡수 등의 좋은 착용감⁴³⁾ 등이 강화된 기능적 섬유 의 개

발과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몸에 잘 맞으면서도 움직임에 의해 변형이 적은 섬유 개발은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컬러 개발과 탈색 및 이염이 방지된 컬러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화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일반적 의복의 염색방법인 그라데이션 기법이 쓰여지기도 하였다. 나이키의 마리아 사라포바의 데이 드레스는 라임컬러에서 차콜로 그라데이션된 컬러의 프릴을 달아<Figure 6(left)> 다양한 컬러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섬유 개발에 힘입어 엄격했던 테니스 웨어에 대한 규칙을 깨트렸다. 핑크와 그레이를 믹싱한 테니스 웨어는 컬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블랙의 벨트라인은 지루함을 없애주어 경쾌하고 캐주얼한 테니스 경기복을 선보이고 있다<Figure 6(right)>.

4) 디테일 및 트리밍의 도입

US오픈에서 마리아 사라포바는 이태리 선수 로베르타 빈치와의 경기⁴⁴⁾에서 기존의 테니스웨어의 칼라를 제거한 심플한 테니스웨어를 착용하였다. 검붉은색의 테니스 웨어만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지만 편안함이나 기능적 효과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정색의 스팅글을 달아 장식적 요소를 부여하고 있다. 테니스 경기는 낮에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주로 밤에 착용하는 의복에 스팅글이나 비드 장식하는 전통적 관습을 깨고 스포츠 경기복에 사용함으로써 파격을 기하고 있다<Figure 7(left)>.



<Figure 7> (left) Sharapova
- <http://news.naver.com/main>
(right) Caroline Wozniacki,
- <http://www.tennisidentity.com>

또한 러플 등의 여성적 디테일이 테니스 웨어에도 적용되었다. 각테일드레스의 러플과 같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힘과 땀으로 상징되는 경기복에 적용되기도 하였다<Figure 7(right)>

5) 타영역과의 콜레보레이션

(1)역사성의 접목



<Figure 8> Bethanie Mattek
- <http://sports.espn.go.com>

베타니 마텍(Bethanie Mattek)이 착용한 테니스 웨어는 레이스로 된 헤어밴드와 깃발 스타일의 소매가 달린 탑과 무릎까지 오는 양말을 착용하였다.⁴⁵⁾ 가슴 앞이 파인 클리비즈 룩(Cleavage Look)으로 여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선보이고 있으며 어깨에서 가슴까지 이어지는 드레퍼리와 허리의 셔링은 그리스의 키톤(chiton)을 연상케 한다<Figure 8>. 그리스 여신에 영감을 얻은 테니스 웨어는 실외에서 운동을 즐겼던 그리스의 스파르타를 떠오르게 하며 마치 실용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스윙이나 서비스 시와 뒤편 때 마다 소매와 허리의 움직임에 의해 역동적인 움직임과 부드러운 유연성으로 여성성을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2) 영화와 미술과의 접목

세레나 윌리엄스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연상시키는 헤드 새시(head sash)와 가지색에 붉은 금장식이 된 드레스를 착용하였는데 드레스에는 용 문양이 등 위에 있으며 기하학적이며 뱀의 살갗 패

턴이 옆구리 밑으로 있고 한쪽 팔 밑으로 진홍색의 '트론의 디스크(Disc of Tron)'⁴⁶⁾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세레나에 의하면 아시아에 영향을 받았으며 영화 물란(Mulan)을 연상케하고 미술가 제임스 휘슬러의 일본의 영향을 받은 그림 "Nocturne in Black and Gold."과 흡사하다⁴⁷⁾고 하였다<Figure 9>. 가지색 위에 붉은 색의 금빛 장식은 아시아 민족의 정통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황제를 의미하는 용의 문양을 그려 넣어 승리를 기원하고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Figure 9> Serena Williams,
- <http://sports.espn.g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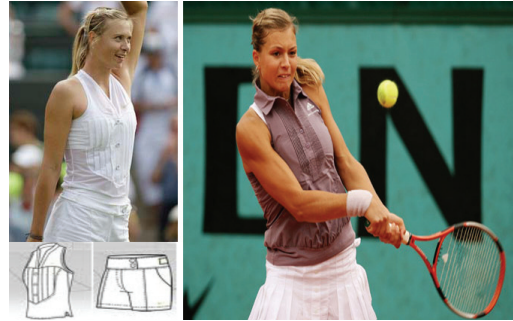
6) 성의 혼합

마리아 사라포바는 2008년 윌블던 경기에서 첫 라운드에 나이키의 화이트/골드 윌블던 컬렉션을 입었다. 남성복을 테마로 한 재킷은 칼라와 라펠 및 앞단에 골드로 스티치 되었고 타이를 뒀으며 일반적으로 남자 옷을, 특히 텍시도 재킷을 사랑한다고 밝힌 사라포바는 넓은 긴 바지는 빠트렸지만, 뒷판에는 등을 판 레이스 백(racerback)⁴⁸⁾ 스타일로 여성성을, 앞 목 부분은 텍시도의 디테일로 처리하여 남성성을 드러내었다<Figure 10(left-top)>.

허리가 밑으로 내려간 바지는 탭으로 잠글 수 있는 넓은 테일러형태의 허리 벨트를 달고 핀 스트라이프와 금장으로 스티치 된 버튼을 달았다. 나이키는 런던의 맞춤형복의 역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Figure 10(left-bottom)>.⁴⁹⁾

그러나 이 디자인은 아디다스의 스틸라 맥카트니

(Stella McCartney)가 마리아 키리렌코(Maria Kirilenko)를 위한 2007년 디자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⁵⁰⁾<Figure 10(right)>. 키리렌코는 2006년 호주 오픈에 자주빛, 2007년 윌블던 경기에 화이트의 텍시도에 영감을 얻은 디자인을 선보였다. 사라포바가 착용한 2008년의 텍시도 스타일과는 달리 칼라가 있고, 키리렌코가 착용한 테니스 웨어의 상의에는 칼라가 없으며 허리부분에 단을 처리하여 블라우징하거나 허리에 보우를 함으로서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Figure 10> (left) top, bottom

- <http://cornedbeefhash.wordpress.com>

(right) Australian Open, 2006

- <http://cornedbeefhash.wordpress.com>

V. 결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화산업이다. 최근 패션 스포츠 브랜드들이 경기에 참여한 스포츠 스타들에게 스포츠 웨어나 스포츠 액세서리를 착용하게 함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수가 직접 경기복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스타의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Table 1>.

이러한 현상은 일상복과 혼재하여 입을 수 있는 스포츠 의류나 테니스와 같은 경기규칙상 착용한 의상이 경기 중 선수의 개성이나 패션성 드러낼 수 있도록 허용된 경기용 의류에서 그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Table 1> Fashion Style in Contemporary Tennis Clothing

Title	Classifications		Contents
Fashion Style in Contemporary Tennis Clothing	Diversification of items	Introduction of other sports wear	Enhanced functiona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rack suit and cycling pants Built-in of tennis bra with function of heartbeat check
		Introduction of one-piece and short pants style	Design development of classic style
		Introduction of the lingerie look	Diversification of fash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ingerie look
	Diversification of materials		The use of lace materials and short pants like nude.
	Diversification of color		Introduction of Color gradient effect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Strengthen casual image with the use of a variety of color
	Introduction of details and trimmings		Highlighting details with sequins, studs, strings, etc
	Collaboration with other fields	Graft of the History	Highlighting dynamism with the times of Greek chiton
		Combination of Movies, arts and games	Collaboration of film "<Pirates of the Caribbean>, <Mulan> of style, James Whistler" nocturne in black and gold and game 'Disc of Tron' in the pattern
	Mixed sex		Highlighting masculinity with the gold-stitched taylor suit in the front of bodice on the contrary highlighting female style with racer back in the back of bodice

테니스는 예절을 중시여기는 스포츠로 경기 중 상대방과의 좋은 매너를 기본으로 한다. 예절을 중시여기는 만큼 경기복장 또한 흰색의 셔츠에 남성은 팬츠, 여성은 큐롯을 착용하고 그 외에 남녀 공용으로 흰색의 양말과 테니스화 등을 착용하였다.

최근 테니스 웨어의 경우 흰색을 착용하던 규정이 많이 완화되어 다양한 컬러의 테니스 웨어가 착용되고 있으며 아이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템이 접목되어 나타나고 디자인에 있어서도 디테일이나 트리밍이 생략되거나 과장되게 가미된 각종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테니스 웨어 디자이너들은 당시 테니스 경기의 룰에 지배받던 테니스 웨어의 디자인에 변혁을 꾀했으나 최근 그러한 시도들은 더욱더 심화

되고 있다. 테니스 브랜드들이 패션디자이너들의 영입을 시도하는 경계허물기의 노력은 테니스 웨어가 진화 발전 되는데 일조하였다. 테니스 웨어의 발전과 진화는 디자이너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테니스 웨어의 디자인적 구성을 잘 알고 있었던 테니스 선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만이 아니라 테니스 웨어의 혁신자로 존재하였다. 그들은 디자이너로서 존재하기도 하였지만 선수로서 경기에 직접 테니스 웨어를 선택하고 착용함으로써 테니스 웨어가 다양화되고 진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테니스 선수들에 의해서 테니스 브랜드가 런칭되고 있다.

이에 현대 테니스 웨어에 반영된 패션성을 보면

첫째, 전통적 테니스 웨어에 새로운 아이템들이 접목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테니스 복에 타 경기복인 육상경기복과 사이클링 바지를 도입하여 활동성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테니스 브라에는 심장박동 체크기를 착장하여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스포츠 브랜드들의 패션디자이너들과의 콜레보레이션은 디자인 뿐 아니라 테크놀로지와의 협업으로 경기복의 혁신을 가져왔다. 투피스 형태인 셔츠와 큐롯 스커트의 조합과는 달리 원피스의 형태를 디자인함으로써 스윙을 할 때 셔츠가 올라가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신에 기능적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피스의 등을 넓게 파 여성성과 과감성을 드러내었다. 경기복이라는 경계를 허물어 런제리 룩으로 패션성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소재의 다양화가 시도되었다. 패션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테니스복에 레이스를 컷 아웃하여 사용하였으며 캉캉 댄스복에 영감을 얻은 테니스 웨어를 선보임으로써 디자인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소재의 다양화는 테니스 웨어에 일루전의 효과도 가능케 하였다. 속에는 스트레치가 강화된 숏 팬츠를 스킨 컬러로 착용하여 마치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스포츠의류의 디자인의 요소를 기능성과 활동성을 넘어서 재미를 추구하는 놀이의 개념을 도입하여 환상과 착각이라는 요소를 의복에 대입하였다.

셋째,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컬러의 사용은 땀 흡수가 잘되는 기능적 섬유 개발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몸에 잘 맞으면서도 움직임에 의해 변형이 적은 섬유의 개발은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았던 컬러의 개발과 탈색 및 이염이 방지된 컬러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화되었다.

넷째, 디테일 및 트리밍의 도입은 스팅글, 스테드, 스트링 등의 트리밍과 다양한 러플인 디테일로 섬세함을 부각시켜다.

다섯째, 역사성의 도입으로 가슴 앞부분의 드레퍼리와 허리의 셔링으로 그리스의 키톤에서 영감을 얻어 그리스 여신을 연상케 하는 테니스웨어를 착용하였으며 또한 테니스 웨어에 타 영역의 영화와 미술, 게임 등이 적용되었다.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영화 <물란(Mulan)>을 비디오게임의 '트론의 디스크'

의 문양과 제임스 휘슬러의 그림 'Nocturne in Black and Gold'의 요소를 도입시켰다.

다섯째, 성의 혼합으로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디자인적 요소가 혼용되었다. 재킷의 앞판에 칼라와 라펠에 골드로 스티치 되었고 타이를 매 남성성을, 뒤판은 레이스 백(racerback) 스타일로 여성성을 부각시켰다.

Reference

- 1) Park Chanhuk(2008), *World of sports marketing*, Inc Salimchulpansa, pp.28-29.
Kim Hosuk(2000), *Stardom and fandom, Modern society and mass communication*, Korea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Hanwul re-quotation
- 2) Kim, Hyejeong, Seo Eunhye(2010), "Study on the tennis look in modern sportism", *2010 KSFB & LASALLE, International Symposium*, p.80.
- 3) Kim, Miyoung, Han Myungsook(2003). "A Study on the Sportism in Domestic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v.15, no.5, p.780.
- 4) As the official sponsor of sports marketing is not just for consumers, despite official sponsor to forge a strategy to promote to customers Retrieved 2012, 5. 31 from <http://ko.wikipedia.org/>
- 5) Kim, Hyejeong, Seo Eunhye(2010), op. cit., p.80.
- 6) Yoo Changsoo, "'sportism' three kinds of tips for completing In the spring fashion trends", Retrieve 2010.9.25 from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320022002#>
- 7) Ye Junghyun, "If the designer make Sportswear, That is also art", Retrieved 2010.8.19 from <http://www.fi.co.kr/=2010-07-26>

- 8) "Design masters come down to normal", Retrieved 2011.11.22 from <http://m.asiaae.co.kr/>
- 9) "Tennis", Doosan Encyclopedia, Retrieved 2010,05,16 from EnCyber & EnCyber.com
- 10) No Jeaho(1999). "The impact of tennis participation in mental health and stress on life satisfaction".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p.6.
- 11) Kwon Youngki(2006). "Content analysis of women's tennis player of the matches South Korea - focused on company players -".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ster's Thesis, p.6.
- 12) "History of Tennis", Retrieved 2010.8.19, from www.britishtennis.com/newtotennis/history
- 13) Ibid., Retrieved 2010.8.19, from www.britishtennis.com/newtotennis/history/
- 14) Ibid., Retrieved 2010.8.19, from www.britishtennis.com/newtotennis/history/
- 15) Choi Hyesun(2001). *Active sportswear design*. Suhaksa. p.155.
- 16) Ibid.. pp.155-156.
- 17) "TENNIS RULE-1 Court", Tennis Magazine, Retrieved 2010,5,16 from <http://tennismagazine.co.kr>
- 18) Kwon Youngki(2006). op.cit. p.10
- 19) "Grand Slam", Retrieved 2011. 12. 4 from [http://en.wikipedia.org/wiki/Grand_Slam_\(tennis\)](http://en.wikipedia.org/wiki/Grand_Slam_(tennis))
- 20) "History of Tennis", Retrieved 2010. 8. 19 from www.britishtennis.com/newtotennis/history/
- 21) Kang Bakkwang, "Comfort, sweat drying fabric technology", *Technology News Briefs*,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on, Retrieved 2011. 3. 21 from www.knitcenter
- 22) Christina Okello (AP), "Venus Williams' tennis dress cheers lace industry", Retrieved 2010. 5.31 from www.ifashion.co.za/
- 23) "Once upon a time...René Lacoste", Retrieved 2011. 11. 23, from <http://fondationrenelacoste.org>
- 24) Choi Junga(CJA)et al, "The power of Immortality, Luxury 100 items", Retrieved 2011. 12.21 from <http://tong.nate.com/>
- 25) Ye Junghyun, op.cit., Retrieved 2010. 8.19 from <http://www.fi.co.kr/=2010-07-26>
- 26) Designers for the championship like Maureen Connolly, Billie Jean King and Margaret Court through the 1950's, 60's and 70's
- 27) "Cyd Zeigler jr., Skip to Content ↓ Remembering Ted Tinling, Tennis Designer", Retrieved 2010.8.18. from <http://outsports.com/jocktalkblog/2010/08/18/>
- 28) "Fashion designer Ted Tinling at the museum", Retrieved 2010. 12.29 from <http://www.wimbledon.org/>
- 29) The main stadium of the Australian open matches
- 30) Ye Junghyun, op.cit., Retrieved 2010. 8.19, from <http://www.fi.co.kr/=2010-07-26>
- 31) Cho Euiji(2009.10.11), "David Beckham launches his own line of sexy fashion", Retrieved 2010.8.17, from <http://www.tvdaily.co.kr>
- 32) Fit Sugar(2007.8.29), "Venus william launches EleVen Clothign Line", Retrieved 2010. 8. 17, from <http://www.fitsugar.com/Venus-Williams-Launches-EleVen-Clothing-Line-575162>
- 33) Charlotte James(2010.8.19), "Fashion retrospective: These boots are made for talking", Retrieved 2010.8.19, from <http://www.australianopen.com/2010.01.18>
- 34) Park Wonsik(2004.9) "Sharapova "Skills are now 20%"", Retrieved 2010.10.23, from <http://www.hani.co.kr>
- 35) American tennis player Ashley Harkleroad

- debut in 1999 was ranked 39 in 2003. In 2001, his debut as a professional American tennis superstar of the next generation
- 36) Scottish professional tennis player, In August 2009, the highest ranking second in Britain's tennis player
- 37) Bridgette Meinhold(2012.3.23), "Adidas by Stella McCartney's tennis bra Includes built-in hear sensor". Retrieved 2012. 12.1 from <http://www.ecouterre.com>
- 38) Venus Williams(2010. 5. 26), "Wednesday", Retrieved 2011. 10.25. from <http://www.rolandgarros.com>
- 39) "Spring/Summer 2009 Tennis Preview From adidas By Stella McCartney. What's Not to Love?"(2008.12.24) Retrieved, 2012. 11.30 from <http://www.tennisidentity.com/tennisidentitycom/adidas-by-stella-mccartney>
- 40) Venus Williams(2010.1.23), Retrieved, 2011. 3.23 from www.downdthelinetennis.com
- 41) Christina Okello (AP)(2010. 5.31), "Venus Williams' tennis dress cheers lace industry", Retrieved 2011. 10.1, from www.ifashion.co.za
- 42) Charlotte James(2010.01.18), "Fashion retrospective: These boots are made for talking", Retrieved 2010.8.19, from <http://www.australianopen.com/2010.01.18>
- 43) Kim Hyejeong, Seo Eunhye(2010), op.cit., p.81.
- 44) "Even Sequins ... more gaiety tennis clothing"(2007.8.29), Retrieved 2012.11.30 from <http://news.naver.com/main>
- 45) Patrick Hruby, "Fashion faults do andre proud". Retrieved 2011. 12. 14, from <http://sports.espn.go.com/.../story?page=hruby/060905>
- 46) Video game made by Disney
- 47) Patrick Hruby, op.cit., Retrieved 2011. 12. 14 from <http://sports.espn.go.com/.../story?page=hruby/060905>
- 48) X-shape string of top or X-shape top of in the back of bodice
- 49) "Sharapova's sheer beauty"(2008.6.24), Retrieved 2010.12.2, from <http://cornedbeefhash.wordpress.com>
- 50) "Fashion focus: nike digs into adidas archives for maria's wimbledon kit", (2008.6.22), from <http://cornedbeefhash.wordpress.com>
-
- 접수일(2012년 11월 12일),
수정일(2012년 11월 27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12일)